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이란에 무조건 항복 촉구. 5월 소매판매는 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미국,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어려운 상대. 상원 공화당 의원은 복수세 연기 제안
 - EU, 중국과의 고위급 경제회담 거부. '28년부터 러시아 원유 영구적으로 퇴출
 - 일본은행, 단기 정책금리 동결. 내년부터 국채 매입 감액 규모 축소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 부진한 5월 소매판매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8%], 달러화 강세[+0.8%], 금리 하락[-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이스라엘-이란 분쟁의 트럼프 정부 개입 가능성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 증폭 등으로 0.9%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7%, 0.4%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월 소매판매의 전월비 큰 폭 감소 등이 반영
독일은 차익 매물 출회 등으로 1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78.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1.8원, 1.4% 상승). 한국 CDS 강보합

		6/17일	6/16일	전일대비			6/17일	6/1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982.7	6,033.1	-0.84%	국채 금리 10y	미국	4.39%	4.45%	-6bp
	유럽	542.26	546.91	-0.85%		독일	2.54%	2.53%	+1bp
	중국	3,387.4	3,388.7	-0.04%		영국	4.55%	4.53%	+2bp
	일본	38,537	38,311	+0.59%	CDS 5y	한국	27bp	27bp	+0bp
	한국	2,950.3	2,946.7	+0.12%		중국	49bp	46bp	+3bp
환율	달러지수	98.82	98.00	+0.83%	위험 지표	EMBI+	-	367	-
	유로화	1.1480	1.1561	-0.70%		VIX	21.60	19.11	+13.03%
	엔화	145.29	144.75	-0.37%		WTI유	74.84	71.77	+4.28%
	위안화	7.1868	7.1802	-0.09%	원자재	구리	480.9	483.6	-0.56%
	원화	1,362.7	1,363.8	+0.08%		금	3,388.1	3,385.2	+0.0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이란에 무조건 항복 촉구. 5월 소매판매는 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은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을 제시. 다만, 인내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이란을 압박. 또한 '우리는 이란 상공의 전면적 통제를 확보했다'고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귀국 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지시. 이에 주요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직접 타격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통한 개입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
- 아울러 CNN 역시 일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외교적 해법보다 직접 군대 투입을 통한 이란 핵시설 파괴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상공 통제에 나섰다는 의미로 해석
- 이스라엘의 커츠 국방장관은 17일 테헤란의 중요한 표적을 공격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신을 촉구. 또한 이란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걸프전 이후 사형에 처한 이라크의 후세인 전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
- 한편, 5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9% 줄어 4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일부에서는 관세 불확실성, 경기불안 등으로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일부 부문(관세로 가격이 인상된 자동차)의 부진 영향이 컸기에, 전방위적 소비위축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주장
- 애틀랜타 연은은 2/4분기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전기비 개선(1.2%→2.0%)되고, GDP 또한 3.5%의 증가율로 전기(-0.2%)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추정. 다만 고용 둔화, 증시의 변동성 확대, 관세 인상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소비자 지출의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평가(Comercia Bank)
- 이 외에 5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0.1% 증가했고, 4월 기업재고는 전월비 보합. 정채된 기업재고는 2/4분기 GD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5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32를 기록하여, 2년 5개월 만에 최저.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모기지 금리 장기화 때문인 것으로 평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무역협상에서 일본은 어려운 상대. 상원 공화당 의원은 복수세 연기 제안

-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은 어려운 상대라고 언급. 한편,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세법 개정안의 복수세(미국에 부당 과세를 적용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미국 자산 투자자에게 4년에 걸쳐 최대 20%까지 세금 부과) 시행을 '27년으로 연기하고, 상한선도 15%로 낮추는 방안 제안

■ EU, 중국과의 고위급 경제회담 거부. '28년부터 러시아 원유 영구적으로 퇴출

- FT에 따르면, EU는 7월로 예상되었던 중국과의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를 거부. 이는 주요 현안 관련 양측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었기 때문.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28년부터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규정 채택. 1년 미만 단기 계약에 의한 원유 수입은 내년 6월부터, 신규 수입계약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중단

■ 일본은행, 단기 정책금리 동결. 내년부터 국채 매입 감액 규모 축소할 방침

-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통화정책의 핵심 금리인 무담보 익일물 콜 금리(0.5%)를 동결. 이는 미국 관세정책의 경제 영향을 판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한편, 국채 매입 감액 규모는 현행 분기별 4000억엔에서 2000억엔으로 축소. 최근 장기 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감안한 결정으로 추정
-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당분간 위험 관리 측면에서 관망의 전략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Goldman Sachs)

■ 국제에너지기구(IEA), 금년 원유 공급은 충분. Citi는 금 가격 전망을 하향 조정

- IEA는 금년 원유 공급 전망을 상향 조정(+160만배럴→+180만배럴)하고, 수요 전망은 하향(+74만배럴→+72만배럴). 이에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 한편 Citi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 세계 경제 성장 전망 개선 예상 등을 이유로 금 가격의 3개월 및 6~12개월 목표를 모두 하향(각각 3500달러→3300달러, 3000달러→2800달러)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18일 현지시각 기준)

- 6월 FOMC, 6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유로존 5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관세憂 우려로 금리동결에 나설 가능성 - WSJ

(Why the Fed Isn't Cutting Rates Despite Cool Inflation)

- 최근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상승률을 나타냈으나, 연준은 관세가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며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 인플레이션 기대는 실제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일례로 소매업체와 임대업자들의 경우 비용 상승을 예상하면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상
- 다만 연준 내부에서는 시각차가 존재. 월러 이사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일회성 현상에 그칠 것이라며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 반면 여타의 인사들은 기업들이 다시 가격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에 주목. 이에 연준은 고용 둔화에 대응하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

■ 연준의 고유가 대응, 경제 지표들의 의미에 보다 집중할 가능성 - Financial Times

(War and the Fed)

- 이스라엘-이란의 갈등 이후 유가는 잠시 안정되는 듯 했으나 다시 큰 폭 상승. 통상적으로 유가 상승 시 물가상승과 GDP 감소가 발생하는 등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증가. 하지만 최근 미국은 원유 수출국이 되었기에 고유가가 인플레이션과 GDP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처럼 하나의 방향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 실제로 원유 생산 기업들은 고유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혜택은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일부 이전될 수 있기 때문. 이에 연준은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법안, 과거와 같은 경제적 혼란 시대 유도할 우려 - NYT

(This crypto act will return America to an era of economic chaos)

- GENIUS Act는 예금은행은 물론 민간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이는 과거에 운영된 '자유은행시대'의 제도와 유사. 당시 은행은 자체적인 달러화 발행이 가능했으나, 켄마다 다른 규제 체계 등으로 통화의 단일성이 무너지면서 혼란이 발생. 이러한 문제가 오늘날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도 재현될 가능성
- 수많은 발행자와 불완전한 규제는 통화가치와 결제시스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하나의 코인 붕괴는 연쇄 위기로 번져 담보물인 국채 투매로 이어질 우려. 특히 현대의 고도로 연결된 경제에서는 민간 주도의 다중 화폐 체제가 부적합할 소지

■ **신흥국 채권시장, 달러화 약세로 장기간의 유동성 부족 종료될 전망 - Reuters**

(Emerging market local currency debt could end decade-long drought as dollar wanes)

- 최근 신흥국 채권펀드로 8주 연속 자금이 유입(EPFR). 이에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 주요 신흥국 채권시장은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전환의 기회를 모색. 이는 미국 예외주의 등으로 인한 14년간의 암흑기 청산을 의미(JPMorgan). 아울러 다음의 이유들로 신흥국 채권시장으로의 해외자금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첫째, 미국 예외주의 후퇴 및 달러화 약세로 인한 자산 다각화 목적의 글로벌 자금 이동. 둘째, 미국 금리인하 기대 축소와 수익 증가를 원하는 선진국 자금의 신흥국 유입. 셋째,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자산 배분 확대는 이제 시작 단계(BoA). 넷째, 신흥국 중앙은행은 대부분 이미 금리인하를 시작

■ **미국의 보다 엄격한 이민자 단속, 경제적 허점이 가득한 모순적 정책 - 블룸버그**

(Immigration crackdown is full of economic holes)

■ **외국 중앙은행의 미국 자산 노출 축소, 보유 자산 다각화의 영향일 가능성 - Reuters**

(Foreign central banks are shrinking US asset exposure)

■ **상승 위험 내재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신중한 자산 배분을 요구 - 블룸버그**

(Inflation Remains the Big Threat to Your Wealth)

■ **유로화의 국제위상 강화, 미국 달러화 약세가 진행 중인 지금이 적기 - Financial Times**

(This is Europe's 'global euro' moment)

■ **이란의 석유 공급 중단, 저렴한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핵심 피해국 - WSJ**

(If Iran's Oil Is Cut Off, China Will Pay the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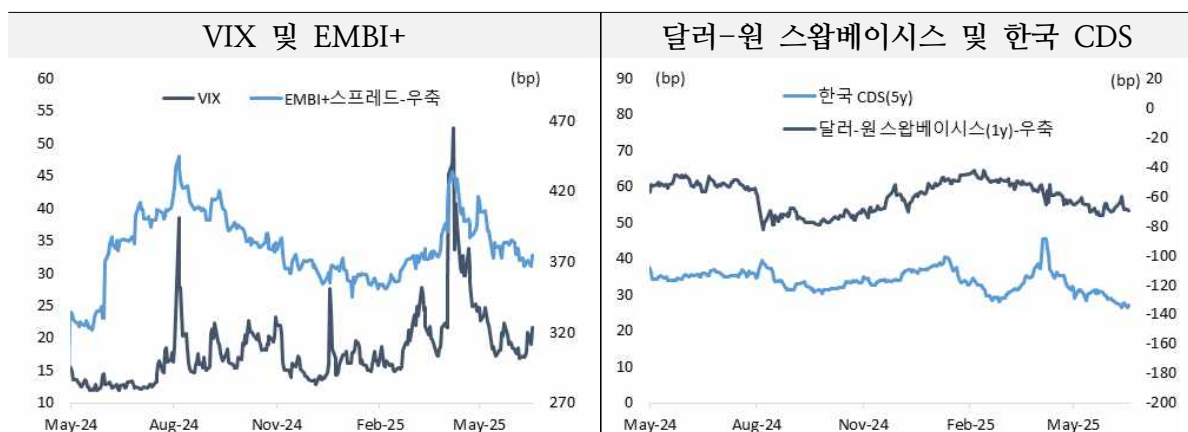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